

부산항대교

영도구 남항동~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명품해안순환도로 구축사업 마무리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르네상스시대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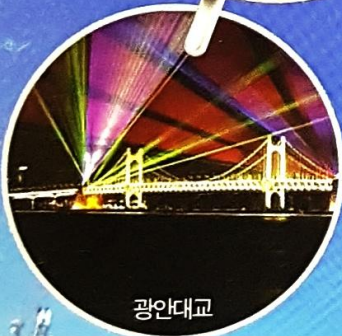
거가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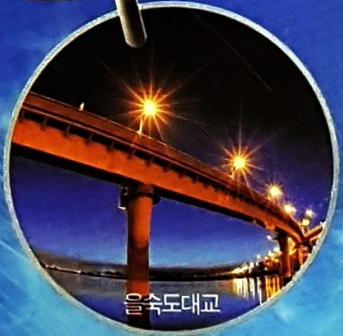
신호대교



가덕대교



광안대교



을숙도대교



관광협회장 이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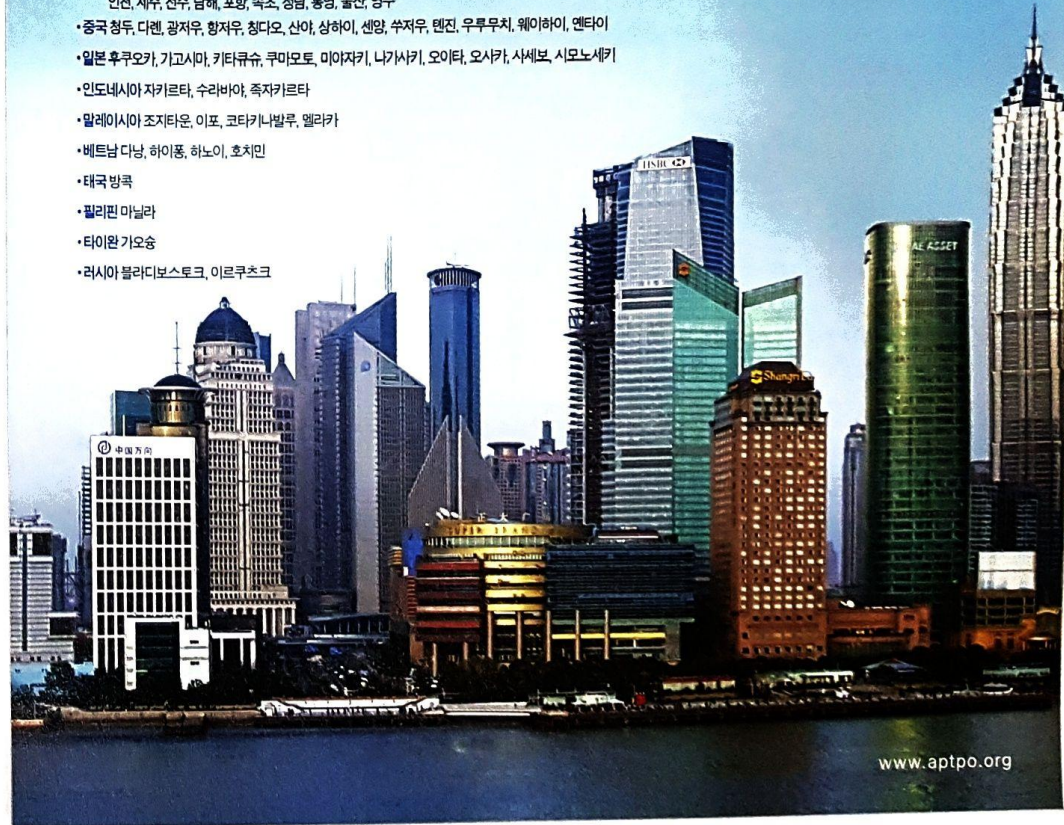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디렌,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셴양, 쑤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기타큐슈, 쿠마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기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新외식문화 - 광안리 해수욕장의 中心!!

GUESS WHO? 는

1991년 4월 9일 오픈한 전통있는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광안리 바닷가 테마거리 중앙에 있으며,
광안대교가 다 보이는 야경과 이국적인 테라스가 있는 분위기 좋은
부산의 명물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입니다.
저희 업소는 항상 타 업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실력과 능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근성을 가진 직원들과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경력으로
게스후 패밀리레스토랑 전통의 맛을 오래도록 지키며
항상 시대에 걸맞는 멋진 맛집으로서 항상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음식과
아늑한 휴 분위기가 일품입니다.
항시 5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서
맛과 서비스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GUESS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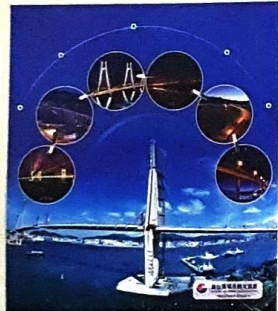
COFFEE & PIZZA FAMILY RESTAURANT

3F 노래찾는사랑들	2F 日式 기간 日本 料理	1F GUESS WHO?	3F Song of Joy 노래주점, 노래연습장	1F 맛있는 밥도둑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200-1번지
Tel. 051)757-1213~4



발행·편집인 이태성
편집위원 손해식, 이광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4년 4월 30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j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부산항대교

- 05 세계관광협회 - 한국관광산업 속도 아시아국가 중 1위, 전 세계 11위 밝혀
- 06 베트남서 '부산 의료관광' 해외 특별전 개최
- 07 부산 아시아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
- 08 부산시 관광협회-나가사키현(長崎縣) 관광연맹 25주년 친선교류회 개최
- 10 2014년 MICE산업 4대 전략·10대 과제 추진
- 11 부산시, 중국 강취여행시그림 유한공사와 관광 협약
- 12 벵스코 대규모 국제회의·전시회 잇따라 개최
- 13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부산국제모터쇼 개최
- 14 영도구 남항동~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부산항대교 개통
- 17 동부산관광단지 6성급 힐튼부산호텔, 아난티 팬트하우스 착공
- 18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4
- 19 마카오정부관광청 '트래블 마트 및 런칭 리셉션'
- 20 부산 찾는 동남아 관광객 급증, 다양한 상품 개발 나설 때
- 21 中·日 골든위크·노동절 황금연휴 17만명 한국 찾는다
- 22 해운대 백사장 옛 모습 되찾기 프로젝트
- 24 부산시티투어버스 '100만명 돌파'
- 25 2014조선통신사 축제/부산동물원 '더 파크'
- 26 부산시민공원 5월 1일 개장
- 27 6월이면 열린관광 송상현 광장 개장
- 28 부산시관광협회 국내여행 분과위원회
- 29 부산시·김해시 '허왕후 신항길' 관광코스, 관광상품화 시킨다
- 30 봄·가을 관광주간 신설
- 31 '부산 남항에 유람선 띄우자' 한 목소리
- 32 감천마을, 산복도로 6월부터 민박허용
- 33 호텔가소식
- 34 부산타워 42년만에 리모델링
- 35 황령산에 부산전역 조망할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
- 36 아름다운 녹색길 같이 걸어오!
- 37 문화칼럼 | 2002 한·일 월드컵 소회
- 40 SPECIAL COLUM | 2200년의 시공초월, 영도다리와 진시황

세계관광협회 - 한국관광산업 속도 아시아국가 중 1위, 전 세계 11위 밝혀

세계관광협회(WTTC)가 한국 관광업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국가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WTT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속도가 아시아 국가 중 1위, 전 세계에서 11위라고 밝혔으며, 지난 3일 방한한 데이비드 스코실 WTTC 회장은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의 관광업이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은 이유는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타 산업과 비교해 관광업의 성장속도와 일자리 창출능력에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WTTC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여행 관광산업의 기여도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4.7%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국내 연평균 경제 성장속도인 3.3%와 비교해 큰 성장세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행관광산업은 지난해 680억달러(약 72조)의 수익을 만들어 냈고 이는 한국 경제에 5.8%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능력에서도 여행 산업은 전체 고용의 6.3%인 1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직접 고용 면에서 화학제조 등 한국 경제의 대표

적인 산업부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행관광산업에 100만달러(약 10억원)가 지출될 때 2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이는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을 때 금융부문은 17개, 자동차 제조 15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코실 WTTC 회장은 "한국 관광산업의 전망이 밝은 것이 늘어나는 중국여행객의 영향"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약 1억명 가까이 된다"며 "중국인에 맞는 관광 상품 개발과, 더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실 회장은 "최근 WTTC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을 찾는 여행객은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젊은 층은 K팝으로 대표되는 콘서트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노년층은 휴양을 목적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관광의 전망 또한 밝다"며 한국이 의료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경비 추가비용 사전고지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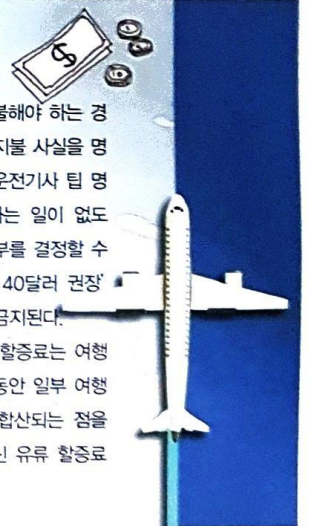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상품을 내놓고 현지에서 각종 팁이나 선택관광을 요구하는 여행사의 관행이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를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지난날 밝혔다. 행정예고가 되면 20~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를 받고 바로 시행하거나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현지 여행 가이드 경비와 팁(봉사료), 선택관광 경비 등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해서 여행경비 총금액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 표기를 허용하되 추가 지불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가이드나 운전기사 팁 명목으로 필수경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팀은 자유의사에 따라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인당 팀 40달러 권장'과 같이 금액을 표기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별도로 표시할 수 있었던 유류 할증료는 여행 경비 총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여행업체에서 유류 할증료가 별도로 합산되는 점을 악용해 항공권 요금을 낮추고 대신 유류 할증료를 높이는 사례가 있었다.



베트남서 '부산 의료관광' 해외 특별전 개최

부산시는 이달초 베트남 하노이 국제전시센터에서 의료관광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권의료산업협회를 비롯해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관, 여행사 등 의료관광 관련 7개 기관·기업이 참가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아시아 3대 의료관광 도시' 진입을 목표로 도시 선정 및 개최 일정 확정 등 해외특별전 준비에 매진했다. 특히 지난 1월 산업자원통신부의 국비 지원 유망전시회에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해외특별전 개최가 급



허남식 부산시장이 베트남서 부산의료관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물살을 탔다. 시가 해외특별전 첫 개최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이 나라가 매년 7.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부산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부산을 찾은 베트남 환자 수가 지난해 787명으로 1년

새 87%의 급증세를 보인 것도 한 몫했다. 80개 부스 규모로 열린 이번 해외특별전은 세계 25개국 400개 사가 참여하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전시회인 '베트남관광전'과 함께 열려 전 각국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시장 개척에 시너지 효과도 거두었다.

서부산 의료관광 클러스터 출범, 외국인 유치 본격화

"고부가가치 의료관광객을 잡아라" 서부산권 5개 종합 병원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부산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출범시켜 서구의 의료관광특구지정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의료관광 클러스터에 참가한 종합병원은 강동병원·고신대복음병원·동아대병원·부산대병원·부산위생병원으로 강동병원을 제외한 4개가 서구에 위치해 있다. 이번 의료관광 클러스터에는 부산시와 서구, 사하구, 부산관광공

사, 코모도호텔, 롯데백화점 광복점, 송도변영회, 자갈치조합, 국제시장변영회 등도 참여하게 했다. 이들은 앞으로 ▲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 보건복지부·문화체육부·부산시 주관의 각종 사업 공동 참가 ▲ 해외환자에 대한 원활한 진료시스템 공동 구축 등을 추진한다.

5개 종합병원은 곧바로 보건복지부 등이 주관하는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육성사업' 유치에 나설 예정인데 이 사업은 2년 연속 추진 중인 인천은 물론 최근 대구·강원·제주 등도 뛰어드는 등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포스터 선정

오는 10월 2일 개막해 열흘 동안 열리는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공식포스터(사진)가 공개됐다. BIFF는 이혁진 작가의 'Emotion' Y.R.G.W를 원화로, BIFF 최순대 미술감독이 디자인했다. 이혁진 작가의 이 작품은 레진 표면에 섬유질을 덧대어 만든 판을 길게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림과 결합한 '그림조각' 작품이다. 전통 광주리를 엮듯이 조각을 가로 세로로 엮은 뒤 그 조각 위에 그림을 그리는 독창적인 작업 방식으로 이름을 알린 이 작가는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형식화된 미술의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 가고 있다. 포스터에서는 영화와 관객, 영화인이 씨줄과 날줄처럼 어우러지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화려한 색감으로 영화 축제의 이미지를 잘 드러냈다.



부산 아시아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 올해 외국인환자 3만명 유치될 것



부산이 아시아의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환자 2만1천798명을 유치해, 2009년 4천 676명보다 4.7배나 증가했다(사진은 외국인 환자 진료 모습).

부산이 아시아의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미국은 물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도 부산으로 의료관광을 올 정도다. 의료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아 부산경제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역 의료기관 28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2만1천798명이 부산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가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선 첫 해인 2009년 4천676명보다 4.7배나 늘어난 것이다. 2012년 1만4천125명에 비해서도 54.3%나 증가했다.

의료관광 부산경제 활력 크게 기여

지난해 국가별 해외 의료관광객은 러시아가 9천894명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국 2천 696명, 일본 1천589명, 미국 1천270명, 필리핀 905명, 베트남 787명 순이다. 국가별 증가율은 러시아가 2012년 5천333명에서 86%, 중국은 1천670명에서 61.4%가 각각 증가했다. 러시아 환자 증가에는 부산~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편리한 항공노선이 한 몫하고 있다. 부산이 서울과 의료의 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20~30%나 저렴하다. 부산시의 환자 유치 노력도 기여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지역병원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블라디보스토

크를 방문, 의료관광 설명회를 열고, 부산을 다녀온 환자들을 통해 부산의 높은 의료 서비스가 입소문 나면서 러시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동남아시아에서 부산을 찾는 환자의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의 경우 2012년 672명에서 지난해 905명으로 35%가 늘었으며 베트남은 87%나 증가했다.

부산을 찾는 해외 의료관광객이 늘면서 환자 유치에 따른 수익도 증가 추세다. 2009년 69억원에서 2010년 88억원, 2011년 14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2년에는 210억원으로 200억원대를 돌파했다. 외국인 환자 1명의 평균 진료비는 168만원이지만, 러시아는 평균 365만원을 지출했다. 입원환자기준 러시아는 암·심혈관·척추 등 중증환자가, 중국은 성형 등 피부미용, 일본은 아토피환자가 많았다.

올해 외국인 환자 3만 명 시대

부산시는 올해 외국인 환자 3만명 시대를 열고 오는 2020년 2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부산을 아시아의 3대 의료관광도시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 한해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 개최 △스크루즈 선상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의 해수욕장과 해안절경, 쇼핑몰, 호텔, 대형병원, 관광업체 등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가 부산에서 치료와 관광을 함께하는 체류형 의료관광 활성화로 의료관광이 부산경제 발전에 보다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우웅 객원기자

부산시 관광협회 나가사키현(長崎縣) 관광연맹 25주년 친선교류회 개최

부산시 관광협회(회장 이태섭)는 지난달 부산 롯데호텔에서 나가사키현 관광연맹과 25주년 친선교류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부산시 관광협회 이태섭 회장을 비롯 고광철 고문, 이근후 명예회장, 강준구 부회장 등 회장단과 서창교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이 참석했다. 나가사키현 연맹은 노자키 겐지(野崎元治) 관광연맹회장, 도사타카(土井正隆)이사, 가와즈에 가즈미(川添一) 국제 관광 컨벤션 회장 등 일행 16명이 참석했다.

이태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존경하는 나가사키 관광연맹 노자키 겐지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광협회 임원 여러분! 양도시 간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자축하고 앞으로 나아 갈 미래지향적인 교류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친선교류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도시 임직원들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이룩해 낸 보람찬 성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가사키 관광연맹 노자키 겐지 회장의 인사와 서창교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의 축사, 기념품 교환이 있었고, 이근후 명예회장, 가와즈에 가즈미 국제 관광 컨벤션 회장 고광철 고문의 건배사에 이어 만찬 간담회로 마무리 됐다.



나가사키현 유명관광지

하우스텐보스 | 빛의 왕국

밤의 거리 풍경도 환상적이다. 특히 거울의 이벤트에는 "세계제일의 이 루미네이션"으로서 빛의 꽃을 만개한다. 1000만개의 LED전구를 사용한 입도적인 예코 빛의 연출은 영원히 잊지못할 감동으로 남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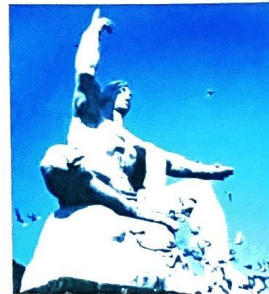
시마바라시 | 시마바라성

7년의 세월에 걸쳐 1625년에 완성된 5층건물의 성. 일본 100대 명성의 하나로 인정되고, 현재는 사료관으로서 당시의 자료와 전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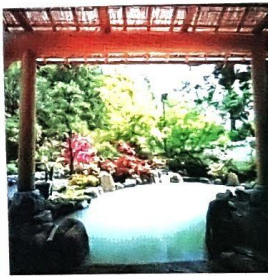
나가사키 | 나가사키 평화공원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더불어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의 피해를 받았다. 중심에 있는 평화기념상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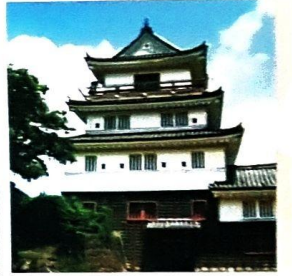
운젠시 | 운젠온천

해발 700m의 고지에 있는 온천이다. 유황성분을 포함한 강산성의 온천으로 류마치스, 신경통,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 메이지시대에 외국인인 찾게 되어 국제적인 피서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히라도시 | 히라도성

히라도번의 주거성으로서 에도증기에 건설된 성. 성내에는 히라도번시대의 유품 및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천수각에서 히라도의 거리모습과 푸른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츠시마시 | 와타츠미신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바다의 여신을 모신 신사이다. 수중에 세워진 도리이가 특징이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정소로서 인기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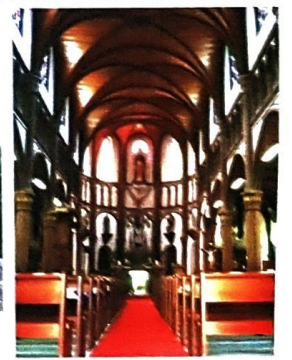


고든시 | 무사마을

시내 중심부에는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무사마을의 돌담이 지금도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느껴 볼 수가 있다.



사세보시 | 쿠로사키성당



2014년 MICE산업 4대 전략 · 10대 과제 추진

부산시가 마이스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전시·Events&Exhibition : MICE) 관련 인재를 더 크게 키운다.

시는 아시아 마이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4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32개 세부사업을 담은 '2014년 MICE산업 육성계획'을 확정했다.

시의 4대 전략은 △마이스산업 기반 강화 △유치역량 강화 △부산 마이스 브랜드 가치 제고 △인프라 확충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마이스업체 및 유망 전시·컨벤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마이스 유치·개최 기능 강화, 중대형 인센티브 역점 추진, 마이스 인식 및 시민참여 제고, 도시 마케팅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 부산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개발 등 10대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마이스업체 육성과 중대형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유치, 전시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PCO 주최 신규 국제회의 지원 △부산업체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호텔 마이스 참가자 관광프로그램 지원 △지역특화 유망전시회 육성 컨설팅 △지역특화 신규 전시회 개최 △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국제기구 유치 △국제회의 참가자 설문조사 △부산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크루즈 컨벤션 코리아 2014' 벡스코에서 개최 세계 주요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등 총 3천여 명이 참석

크루즈 컨벤션코리아 2014가 오는 6월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BPA가 부산시,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주최하는 가칭 '크루즈 컨벤션 코리아 2014' 개최 날짜가 오는 6월 11~13일로 잠정 확정됐다.

3일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크루즈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조선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전시행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시와 BPA 등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크루즈 컨벤션 행사인 'AACC(All Asia Cruise Convention) 2014'의 부산 유치를 확정짓고 영국 시트레이드(Seatrade)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해운·물류 전문사 발간과 조선·해양 관련 국제회의 개최로 유명한 시트레이드 사는 이번행사의 주관사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행사 명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됐다. 그동안 시트레이드 사가 주관해 온 동남아 중심의 'AACC'와 UBM사가 주관해 온 동남아 중심의 '크루즈 시핑 아시아(Cruise Shipping Asia)'행사가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AACC'라는 명칭 대신 '시트레이드 크루즈 컨벤션 코리



사진은 2013년 11월 영국 런던을 방문한 부산항만공사 임기택 사장과 직원들이 시트레이드 사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모습. (부산항만공사 제공)

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BPA 관계자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주요 크루즈선사와 여행사, 기항지 관계자 등 총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로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중국 강휘여행사그룹 유한공사와 관광 협약

올해 부산에 5만 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중국 강휘여행사그룹 관계자들이 지난달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마리너'호를 타고 부산을 찾았다.

중국의 대형 여행사그룹이 올해 부산에 5만 명의 관광객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중국의 10대 여행사 중의 하나인 '강휘여행사그룹유한공사' 회장 등 관계자, 중국 현지 여행사의 각 지역 지사장을 포함한 그룹 관계자들은 아시아 최대 크루즈선인 '마리너(13만 8천급)호'를 타고 부산을 찾아 사전 답사를 실시했다.

강휘여행사그룹 측은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부산시와 관광협력 협약을 맺고, 올해를 '부산 방문의 해'로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리지리에(李繼烈) 강휘여행사그룹 회장, 부산지역 여행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휘여행사그룹은 부산시와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영상·영화의 도시 부산 △사계절 축제의 도시 부산 △과거·현재·미래의 역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부산을 콘셉트로 한 고급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그룹 사장단 회의를 열고 '부산 온리(Only) 패키지'와 FIT(개별자유여행객) 상품, 인센티브투어(포상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강휘여행사그룹은 1984년 중국 국유기업으로 설립된 후 현지 10대 여행사의 위상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회사다. 그룹은 현재 중국 내 32개 지역에 230개 지사, 6천여 개의 판매점을 갖고 있다. 전체 사원 수 6천500명, 연간 매출은 82억 위엔(한화 약 1조 4천억 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베이징항공대학 출신인 리지리에 회장은 2002년 중국 관광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과 부산 특화 상품 개발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의 부산 유치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의 목표 달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5~6월 크루즈타고 중 관광단 2만 7천 명 부산 온다

5월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중국 완메이 유한공사의 (포상)관광단 6천명이 부산에 온다.

27일 부산을 방문한 '우센치(無限極)'(중국 내 업계 3위) 인센티브 관광단 3천200명과 오는 5~6월 부산을 찾는 암웨이(업계 1위)관광단 1만 8천 명에 이어 '완메이' 관광단까지 부산 방문을 결정함으로써 1, 2, 3위 업체가 모두 올해 부산을 인센티브 관광지로 오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부산에서 개최됐거나 개최가 확정된 인센티브 관광과 기업회의는 총 9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4만 5천 명 등 총 6만 8천여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제주 중심이었던 해외기업들의 인센티브 관광, 회의 개최 장소가 부산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중·일 관계 악화라는 외부 변수와 함께 부산의 지속적인 도시 홍보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의 한국 방문에 따른 직접 소비지출 효과가 약 6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벅스코 대규모 국제회의·전시회 잇따라 개최

올해 1,200건 개최 목표...아트쇼·모터쇼·ITU전권회의 잇따라



벅스코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벅스코의 올해 행사 개최 목표는 지난해(1천522건)보다 150여건 이상 증가한 1천200여건이다.

(벅스코 제공)

벅스코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벅스코의 올해 행사 개최 목표는 지난해(1천522건)보다 150여건 이상 증가한 1천200여건. 행사의 성공 개최로 마이스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국내 최고 전시 컨벤션센터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벅스코는 올 상반기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과 △아트쇼 부산을 시작으로 △부산콘텐츠마켓 △부산국제모터쇼를 개최한다. 하반기에는 △국제해양플랜트전 △부산국제보트쇼 △헬스 IT융합전 등 신규 및 대형전시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으로 불리는 △ITU부산전권회의를 비롯해 △제13차 세계한상대회 △카야니아시아컨벤션 등 국제회의를 연다.

먼저 오는 16~18일 열리는 '2014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의 재도약과 동남권 중·중견기업의 원전 기자재 사업진출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아트쇼 부산 2014'는 오는 17~21일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3회째인 이 행사는 전시규모와 해외 참가 갤러리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성장, 아시아 3대 아트쇼로 비약적인 도약을 했다. 다음달 15~17일 열리는 '부산 콘텐츠마켓 2014'는 50개국, 국내외 56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부산국제모터쇼는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다음달 29일부터 6월8일까지 국내외 완성차 21개 브랜드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하반기 행사도 풍성하다. 7월3~5일 열리는 '2014 카야니아시아컨벤션'은 10개국 4천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50여 곳에 거점을 둔 다국적 건강식품 기업 카야니아의 아시아컨벤션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은 일본, 동남아를 아우르는 카야니 물류센터 허브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4천여명의 교포 경제인들이 참가할 '2014 세계한상대회'는 9월24~26일 열린다. 10월2~5일 개최하는 '2014 부산국제보트쇼'는 벅스코가 2년간 준비한 행사로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 이미지 제고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한 신규 전시회다.

정보통신기술(ICT)올림픽으로 불리는 ITU전권회의는 10월20일부터 11월7일까지 3주간 열린다. 유엔(UN)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최고 의사결정체인 전권회의는 세계 193개국의 ICT 분야 장관급 대표들과 ICT 전문가·기업인 등 3천여명을 비롯해 국내외 산업계, 학계, 시민 등 3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초대형 행사다. 관광·전시·컨벤션 등 경제 파급효과가 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4 국제해양플랜트전(Offshore Korea) 2014'은 11월12~14일 지난해보다 두 배 규모로 개최한다.

이효영 기자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 2014부산국제모터쇼 개최

오는 5월 29일부터 벅스코에서 국내차량 88대, 해외 110대 전시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2012년 대회모습. 벅스코 제공)

부산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전시회이자 동남아시아권 최대 자동차전시회인 부산국제모터쇼가 5월 29일 개막된다.

부산시와 벅스코는 최근 '2014 부산국제모터쇼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자동차의 바다,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부산모터쇼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전 행사인 2012년 부산모터쇼(격년 개최)에 비해 전시규모가 크게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참가업체는 국내외 완성차 21개 브랜드와 이륜 및 기타 4개 업체다. 협의 중인 해외차 브랜드도 있어 참가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국내 승용차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차 등 4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전시장 배정 문제로 갈등을 벌여 온 쌍용차는 불참이 확정됐다. 국내 상용차 업계에서는 현대 상용차와 기아 상용차가 참여한다.

해외 승용차는 현재 총 15개 브랜드의 참가가 확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 업체가 총망라됐다. 특히 재규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전시 차량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98대(국내 88대, 해외 110대)로 2012년 159대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모터쇼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신차 발표의 경우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가 지난 대회 2대에서 올해 3대로 늘었다. 모두 현대차에서 발표한다. 아시아 프리미어는 기아차 2대, 마세라티 2대, 닛산 1대 등 총 5대, 한국 프리미어는 20대로 지난 대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콘셉트카는 총 9대가 전시된다.

관람객 체험 부대행사도 확대돼 전기차 시승행사인 'Oil Free Driving 체험존'과 튜닝기능을 느낄 수 있는 '튜닝카 존'이 마련된다. 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와 부산테크노파크의 자동차부품 산업 기술 세미나, 자동차사진 대전 등의 행사도 함께 열린다. 경품차 추첨도 이뤄져 매일 1대의 차량이 유료 입장객에게 선사될 예정이다. 국내차 8대와 해외차 2대 등 총 10대가 경품으로 나온다.

또 동시 행사로 '2014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도 5월, 부터 이틀간 벅스코 신관 전시장 3층에서 열린다.

벅스코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면서 이번에도 100만 관람객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영도구 남항동~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부산항대교 개통으로 명품해안순환도로 구축사업 마무리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르네상스시대 열었다

거가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거가대교(8.2km) → 가덕대교(1.12km) 을속도대교(5.2km) → 신호대교(0.84km) → 부산항대교(3.33km) → 남항대교(1.9km) → 광안대교(7.2km) 번에 부산항 대교가 20일 개통되므로써 7개교량 52km가 연결돼 부산시가 20여년동안 추진해 오던 명품해안순환도로 구축사업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는 영도구 남항동과 남구 감만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3.33km, 너비 18.6~25.6m, 왕복6차로 강함성 사장교로 주탑높이 190m 주탑간 거리는 540m다. 강도 7에 맞는 내진설계와 풍속 80m강도에도 끄덕 없으며 국내 최초의 인공섬식 충돌방지공설치 등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다리가 완공되므로써 부산과 거제, 울산으로 원스톱 연결되는 교통통로의 중심이 될뿐아니라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지지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이다.

부산항대교의 의미는 크다. 단순한 도로가 아닌 뛰어난 해안경관과 어우러진 부산의 역동적인 해양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부산에 걸맞는 해안관광상품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아름다운 다리들은 도시를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도시는 문화적 역량을 모아 훌륭한 다리들을 건설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시드니의 하브브릿지, 런던의 타워 브릿지, 파리의 미라보브릿지, 그래서 세계적 다리들은 한 도시의 대표적 상징이 된다. 다리 자체가 훌륭한 관광명소다.

부산항대교의 경관조명은 모두 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국내 최초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최첨단 LED 경관조명 2천76등을 사장교(1천114m) 및 접속도로를 포함한 1천724m 구간에 설치해 야간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관조명 연출은 하루 일상과 사계절 색상의 변화를 콘셉트로 하고 있다. 흰색을 기본 조명으로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연출해 낸다는 것이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색상의 변화를 담아 '빛의 사계'라는 주제로 연출하고 바다의 변화무쌍한 바람의 한 가운데에 선 부산항대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빛의 바람'(Color of Wind)이라는 이벤트 경관조명도 연출한다.

또 경관조명 연출은 하루 일상과 사계절 색상의 변화를 콘셉트로 하고 있다. 흰색을 기본 조명으로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연출해 낸다는 것이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색상의 변화를 담아 '빛의 사계'라는 주제로 연출하고 바다의 변화무쌍한 바람의 한 가운데에 선 부산항대교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빛의 바람'(Color of Wind)이라는 이벤트 경관조명도 연출한다.



완성되는 축을 담당하고 있다.

다리가 시작되는 암남동 지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리에 오르면 부산의 남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송도쪽의 해안 절벽과 영도쪽의 해안절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멀리 해안선에는 각종 선박들이 오가는 모습이 그림같다. 송도쪽 바닷가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넓게 펼쳐진 매립지, 이곳은 수변공원으로 조성된다. 남항교각을 수놓은 야간 조명은 무지개를 닮았고 교각사이를 규칙적으로 반짝이는 등불은 멀리서 보면 반딧불이 같다.

거가대교

거가대교는 강서구 천가동에서 가덕도를 거쳐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다리로 2010년 12월 개통됐다. 대한민국 최초 침매터널로 2주탑과 3주탑이 연속된 사장교다. 사장교 3.5km, 침매터널 3.7km, 육상터널 1km, 총길이 8.204km의 4차선 다리다.

세계 최대 수심, 세계 최장 함체길이, 세계 최초 3주탑 연속 사장교, 세계 최초 외해건설(파도, 조류, 바람이 심함), 세계최초 2중 포인트 함체 연결, 이게 거가대교에 붙은 5대 세계최초 항목이다. 어찌되었건 세계 최초로 이루어낸 항목이 5가지나 된다.

거가대교는 주탑을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은 물론 미적인 요소도 가미 되었다고 한다. 거가대교 개통은 주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시간

광안대교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과 해운대구 우동의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다. 1994년 8월에 착공 2003년 1월 완전 개통됐다. 총길이 7,420m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대의 해상복층교량이다. 광안대로의 개통으로 수영로와 해운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으며 항만물통량을 신속하게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여 물류비용감소와 수출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해운대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활용되어 해상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뻗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1만6000개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새로 설치, 다양한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불빛소와 부산의 얼굴 등 볼거리를 연출한다. 그뿐인가 10월이면 100만명의 국내외의 시민·관광객들이 모인 가운데 밤하늘을 수놓고 새해 1월 1일이면 해돋이 장소를 내준다. 광안대교는 단순한 다리가 아닌 부산의 상징이다.

남항대교

서구 암남동에서 영도구 영선동을 잇는 남항대교는 1997년에 착공, 2008년 7월 9일 완공된 다리(1999~2002년까지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다. 남항대교는 7개 다리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다리뿐만 아니라 거가대교, 가덕대교, 을속도대교, 신호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망이

을 정해 놓고 선박에만 의존했던 주민들은 이제 아무때나 부산이나 거제를 오갈 수 있게 됐다.

신호대교

신호대교는 서낙동강을 가로질러 강서구 신호동~명지동을 잇는 교량으로 아치와 강상형 합성교 형식으로 길이는 840m 폭은 36m다. 1995년 4월 착공, 1997년 12월 완공된 다리다. 최대 경간장은 중앙아치 부분으로 120m이며, 양측 강상형 합성교가 60m씩 12경간이 덧붙여져 있다. 상하행 각 4차로이며 폭은 29m다. 양측으로 폭 3.5m의 보도가 있다.

부산과 웅원, 거제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호대교를 넘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지나는 여러 다리중 신호대교는 서낙동강을 가로질러 강서구 신호동과 명지동을 잇는 다리이며 을숙도대교와 명주거대단지 그리고 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한다. 산업단지의 시작과 끝은 교량으로 이어져 있다. 신호대교와 가덕대교, 이 둘 사이에 놓여 있는 산업단지가 신항만과 만나 앞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해 본다.

가덕대교

가덕대교는 부산신항과 녹산공단, 가덕도를 잇고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도까지 이어지는 다리다. 총길이 1,120m, 해상본선구간은 780m, 폭 21~35m의 해상복층교량으로 2003년 10월 착공, 2010년 완공됐다. 이 다리는 부산의 녹산국가 산업단지 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가덕대교가 만들어진 녹산과 가덕도는 백악기에 형성된 화강암이 분포돼 있는 지역이다. 가덕대교를 건설할 때 높지 않은 산도 산이었지만 깊지 않은 바다도 문제였다고 한다. 쌓을 때가 되면 바닥이 들어날 정도로 수심이 얕았다고 하는데 수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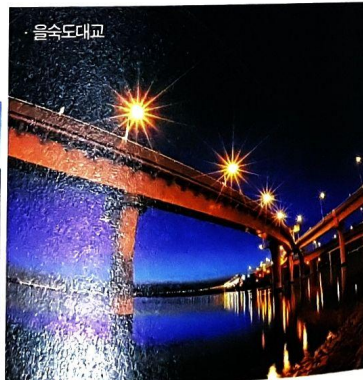
얕다는 것은 퇴적층이 깊다는 뜻이고 다리의 기둥인 교각을 단단하게 고정해 줄 바위층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가덕대교가 산업을 어우러는 다리로 신항과 가깝다. 녹산공단과 명지오션시티를 연결, 주거와 산업의 소통을 연결해 주는 어울림의 다리이기도 하다.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는 1993년 12월부터 서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과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을 잇는 길이 3.7km 너비 35m의 왕복 8차선 도로로 추진 되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착공이 중단됐다. 그후 2002년 3월 문화재위원회가 철새도래지를 우회하도록 설계를 변경, 2004년 2월 길이 5.1km(교량 2.85km), 왕복 6차로 기획착공, 2009년 10월 준공됐다.

준공전에는 명지대교로 불려지다가 완공 후 을숙도대교로 이름지었다. 철새도래지 문제로 곡선구간이 있다. 을숙도대교는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기항지인 부산신항과 기존 부산항 간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항만 배후도로로 국가경쟁력을 키웠다. 또 동북아 물류지점 및 국제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건설로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녹산·신호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서부산권지역 출·퇴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교량건설의 모범사례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봉오 bejbusan@hanmail.net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

동부산관광단지 6성급 힐튼부산호텔, 아난티 팬트하우스 착공 2016~2018년까지 롯데(296실), 랭햄호텔(1,000실), 세가사미(300실) 3곳 더 문연다



힐튼 호텔 · 아난티 펜트하우스 기공식
HILTON HOTEL · ANANTI PENTHOUSE GROUNDBREAKING CEREMONY

아시아 미이스(MICE) 산업의 중심이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지역에 6성급 특급호텔 힐튼부산호텔이 지난달 말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2016~2018년까지 6성급호텔 3곳이 더 문을 연다.

지난달 말 에머슨퍼시픽그룹이 기장군 기장은 동부산 관광단지내에 힐튼 부산 호텔과 최고급 콘도미니엄 아난티 펜트하우스가 착공식을 가졌다. 7만5000여 부지(약 23000평)에 2016년 4월 완공목표로 306실 규모의 6성급 호텔과 최고급 콘도미니엄인 아난티 펜트하우스 90실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해변 길이 1km가 눈앞에 펼쳐지는 힐튼부산호텔은 모든 객실이 일반특급호텔보다 넓은 56㎡(17평) 크기의 스위트룸으로 설계됐다. 호텔 옆에 들어서는 아난티 펜트하우스는 353㎡(107평)으로 구성돼 야외테라스에 개인용품을 설치한 것은 국내서는 처음이며 온천탕도 지어진다. 에머슨 퍼시픽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풍광에 최고급 서비스로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생산 유발효과 약 1조2500억원, 연간 고용창출은 5600여 명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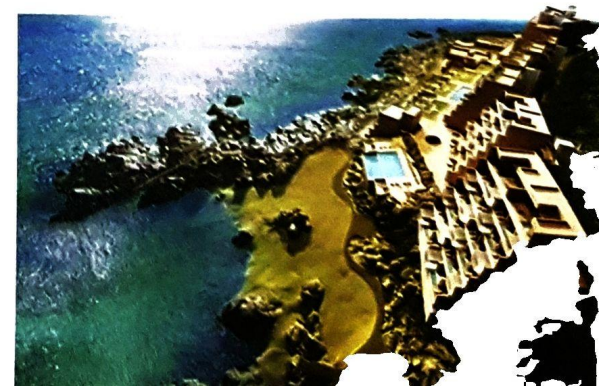
○ 3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해운대 해수욕장 옆에 짓는 부산최고층(101층)으로 건설되는 엘시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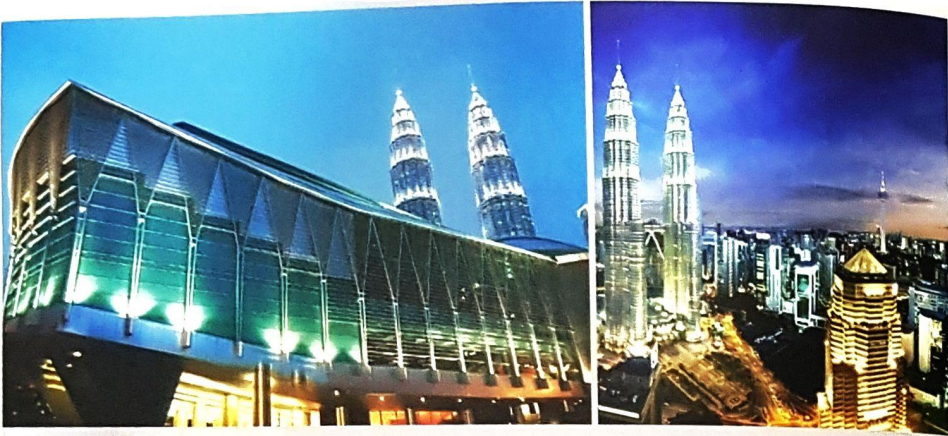
는 2018년쯤 296실을 갖춘 6성급 특급호텔 롯데가 들어선다.
○ 광안리 시월드 놀이동산 자리에는 총 1000실 규모의 영국 랭햄호텔이 올 하반기에 착공 2017년까지 특급호텔 1개동, 비즈니스호텔 1개동이 건설된다.

○ 백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에는 일본기업 세가사미호텔이 2017년 완공 목표로 39층 규모 6성급 특급호텔 300실, 그리고 비즈니스호텔을 동시에 건립한다.

이처럼 국내외 기업들이 해운대지역에 호텔을 짓게 된 것은 해변을 끼고 있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마이신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대형 국제 행사때는 객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대현 기자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4

MALAYSIA MICE ROADSHOW 2014

말레이시아관광청은 “말레이시아방문의 해 2014”를 맞아 한국-말레이시아 양국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MICE 로드쇼 2014” 행사를 4월 25일(금)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미팅 및 인센티브(포상)여행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인 'Malaysia Twin-Deal'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중점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현지 참석자로는 Ms. Ping Ho Yoke 말레이시아컨벤션뷰로 국장, Noor Arif Bin Mohd Noor 말레이시아관광청 한국사무소장, 말레이시아관광업체 15곳 이며, 총 6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마카오정부관광청 “트래블 마트 및 런천 리셉션”



마카오정부관광청은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롯데호텔부산 41층 아테나룸 그리고 사파이어 룸에서 마카오의 호텔, 위락시설, 여행사 등 관광업계(22개 업체) 대표단과 함께, 부산-마카오 관광업계와의 관계증진과 새로운 관광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트래블 마트를 개최하였고, 마카오정부관광청 유환규 한국사무소 대표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2시부터 14시까지 런천 리셉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총 85명이 참석하였다.



KTX 개통 10년, 부산 전시컨벤션 중심지로 떠올라



KTX가 시속 300km로 내달리면서 전국은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섰다.

KTX(고속철)가 1일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10년간 부산 지역 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관광·비즈니스 수요와 관련된 부산 지역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의료·문화계에선 KTX개통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국제회의 비중은 2003년 6.4%였으나 2010년엔 20.9%로 증가했다. KTX 개통으로 서울 못지않게 부산이 지방 전시컨벤션

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KTX 부산역은 중요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역 회의실 이용객은 2005년 4천 명에서 2011년 34만 명으로 80배 늘어났다. 2005년 1천700만 원에 불과했던 임대수익도 2011년 21억 원으로 123배 꺾중 뛰었다.

관광 수요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서 개발한 KTX 연계상품 중 인기있는 상품으로 부산 명소 기차여행, 외도(거제)·순천만 등이 꼽혔다. 내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의 경우 서울을 통해 KTX로 부산을 오거나, 부산을 거쳐 KTX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분석이다.

이처럼 부산이 지방의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서울~부산 장거리 구간 교통수단 분담률은 KTX가 58%(2011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KTX가 개통 전인 2003년에는 항공(39%)이 가장 높았지만 이제 순서가 바뀐 것이다. KTX의 최대 이용구간은 서울~부산으로 KTX 전체 이용객 중 13.7%(1일 2만 명)를 차지했다.

부산 찾는 동남아 관광객 급증, 다양한 상품 개발 나설 때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지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이들 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직항노선 추가개발 등 다양한 상품개발 대책이 시급하다.

1일 부산 외국인관광객 방문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부산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5천3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435명)에 비해 119.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 대만 관광객도 5천102명, 1만 448명이 부산을 찾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5%, 20.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일본인들 외에 이들 신규 지역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부산 직항노선이 새로 개설되면서 현지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



지고 관광상품도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는 에어아시아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9월과 12월에는 중화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대만 타이페이와 가오슝에 직항노선을 개설했다. 항공기 직항노선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 여행자들은 편리한 교통수단을 바탕으로 저렴한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여행업계의 분석이다.

부산시는 신규 지역 관광객들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할랄 인증 음식 제공 및 메뉴 개발 △동남아권 무슬림들을 위한 이슬람 사원 안내 등 맞춤형 수용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中·日 골든위크·노동절 황금연휴 17만명 한국 찾는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최대 연휴 골든위크가 겹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중·일 관광객 17만명이 한국을 찾아 쓸쓸이 규모만 3억달러(3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6만8000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5만명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골든위크(4월 25일~5월 6일)에도 예년 수준인 10만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2월 방한한 중국인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62만3000명을 기록했다. 관광공사는 '벌에서 온 그대' '상속자들' 같은 한류 드라마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번 연휴 특수를 잡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까지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양국 간 정치적 문제와 환율 영향으로 '골든 위크'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예년 수준인 10만명 가량으로 관측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한·일 간 정치적 문제와 엔저 현상 등으로 인한 방문 수요 침체가 장기화 하고 있는데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예년 수준이 유지된 것은 고무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中 관광객 부산~중국 신규 취항 부정기 항공편 급증

한국과 중국에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일보행 기피현상 여파로 올 상반기 부산~중국 간 부정기 항공편의 신규 취항과 운항 재개가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부터 부산~중국 통치 간 부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해 다음 달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항공편은 매주 월·목요일 김해공항에서 출발한다. 아시아나는 부산~치치하얼 간 노선도 다음 달 1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새로 취항해 매주 월요일 1회 김해공항을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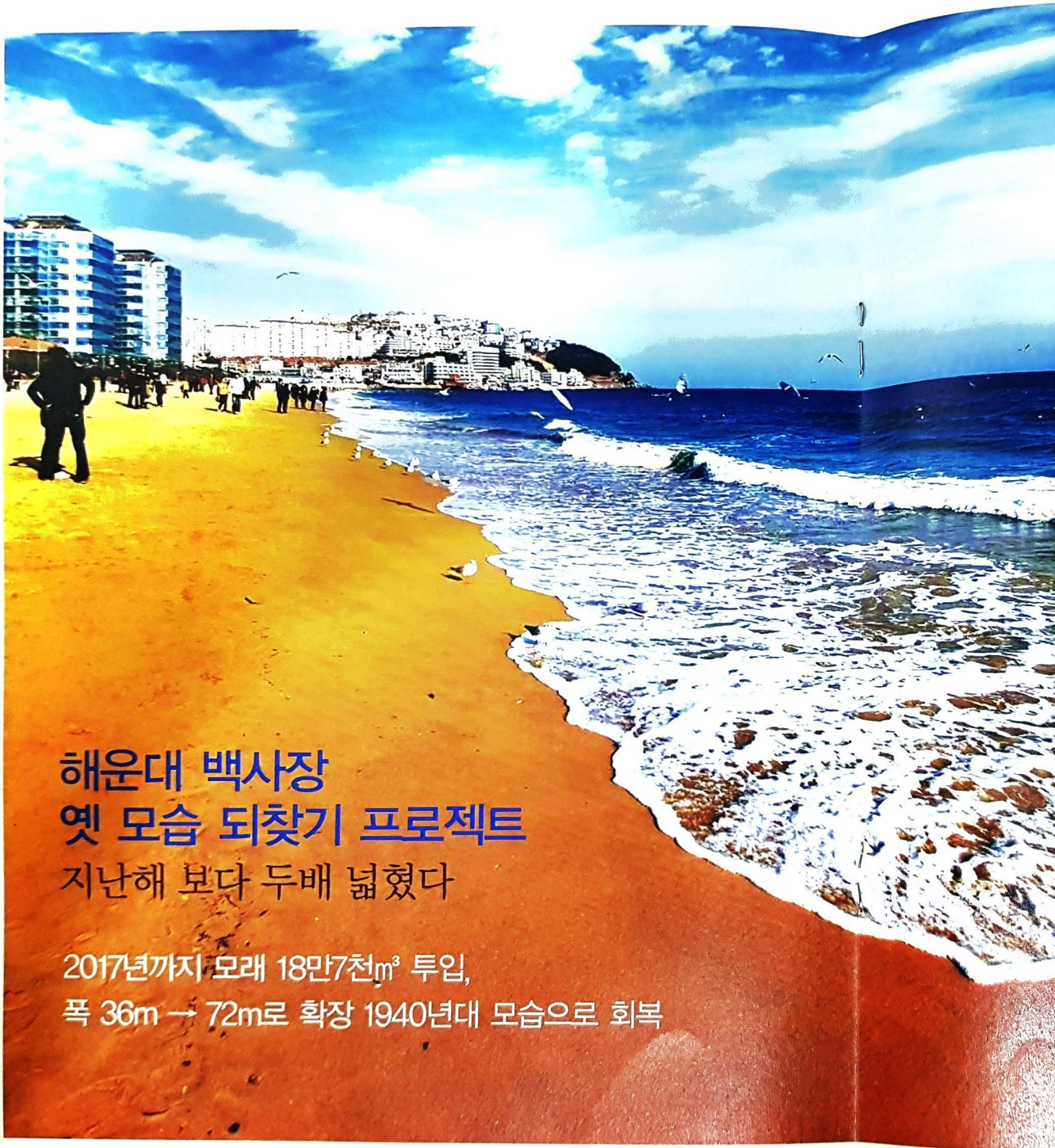
에어부산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타이위안 노선을 신설해 매주 월·금요일 부산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재운항 되는 부정기 노선도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나는 6월 2일부터 부산~선양 부정기 노선을 다시 운항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오는 8월 25일까지 운항되며 매주 월요일 부산을 출발한다.

아시아나는 또 7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하얼빈 노선(매주 목요일 부산 출발)을 운항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부산을 출발하는 창사 노선 운항도 일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아시아나는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부산~구이린 노선을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재운항하고, 부산~장자제 부정기편 운항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개할 방침이다. 중국 상하이항공도 지난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주 2회 부산~장자제 부정기 노선을 재운항 중이다.

정기편은 비즈니스 등 고정적 수요가 주를 이루는 반면, 부정기편은 경기와 국제 정세 등의 영향을 받는 관광수요에 따라 신설·중단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일 간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내 배일감정이 고조된 것이 부산~중국 부정기편 취항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일본 대신에 한국과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해운대 백사장 옛 모습 되찾기 프로젝트 지난해 보다 두배 넓혔다

2017년까지 모래 18만7천^m³ 투입,
폭 36m → 72m로 확장 1940년대 모습으로 회복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1940년대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부산해양항만청·부산시·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벌여왔다. 2017년까지 국비 484억원과 시비 8억원을 들여 길이 1천460m의 백사장에 모래 62^m³를 쏟아 부어 평균 40m에도 못 미치는 폭을 70m로 넓히는 대규모 공사다.

1단계로 15t 트럭 2만대 분량인 모래 18만6천 711^m³를 쏟아 부었다. 모래를 차에 싣고 와 백사장에 부어 불도저로 미는 방식이 아니라, 특수 펌프선에 싣고 와 바다에서 길이 250m 배사관을 통해 모래를 쓰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최근 공사를 마치고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폭을 측정한 결과 평균 72m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36m보다 정확하게 두 배 늘어난 것. 폭이 가장 좁게 보이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앞도 46m로 측정됐다. 가장 넓은 해운대관광봉사센터 앞은

무려 87m로 확장됐다. 백사장 전체 면적도 6만 4천^m²에서 12만9천600^m²로 넓어졌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백사장 확장 공사를 마치고 모래 유실과 어항 훼손을 막기 위해 미포 선착장 주변에 '돌제'를 설치하고 있다. 돌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120m 가량 뻗어나가는 것으로, 모래 이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올 여름 피서철이 지나면 56억원을 들여 모래 11만^m³를 더 보강하고,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앞에도 길이 45m의 모래 유출 방지 둑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미포와 동백섬 인근에 수증방파제(잠제)도 설치한다. 수증방파제는 200m 길이로 파도의 힘을 약하게 해 모래 유실을 줄인다.

2004년 12월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이후 8년에 걸쳐 기본 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드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했다.

광안리 백사장도 모래 1,500^m³ 보강

Guss WHO? 레스토랑 앞 일대 폭 20m → 35m로 넓혀

광안리해수욕장도 올 여름 백사장을 크게 넓힌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모래 1천500^m³를 보강하는 작업을 벌였다. 민락동 일대 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설치했던 가물막이 속 모래와 해안레포츨센터 앞 퇴적 모래를 재활용해 백사장을 넓힌다. 가물막이는 섬유류보 안에 모래를 채운 것으로 공사현장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특히 올해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보강하는 모래의 질도 뛰어나

다. 점토질이 적고 부유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 양질의 충남 태안반도 바다모래여서 백사장의 질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배사장 모래 유실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꾸준히 모래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김무웅 객원기자



부산시티투어버스 '100만명 돌파'



“부산시티투어버스가 2006년 8월 15일 운행을 시작한 이후 7년 7개월여 만에 누적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티투어버스는 운행 개시 이후 부산 시내 주요 관광지와의 호텔 등을 연계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에서 없어서는 안될 관광상품으로 이용하는 승객은 주중 400~500명, 주말에는 1천200~1천500명에 이르고 있다. 성수기에는 2천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에는 연간 이용승객이 운행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2012년에 비해 연간 이용승객이 26%나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티투어버스는 운행 초기부터 달리면서 부산의 멋진 광경을 내다볼 수 있는 2층 오픈톱버스를 도입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봄철, 가을철에는 2층 오픈톱버스를 타러

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출발지인 부산역에서는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생겨나기도 했다. 현재 부산시티투어버스 측은 총 11대의 버스(1층 5대, 2층 6대)를 순환형·테마형 코스 6개 코스에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용승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버스 안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명품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양방향 동시통역이 가능한 단말기와 각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도착시간을 알려주는 운행정보시스템도 관광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360도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부산시티투어버스 측은 이와 함께 고객들의 관광 수요를 반영해 신규 코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부산의 야경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위해 오륙도와 황령산에서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투어’와 함께 투숙 중인 호텔과 야경 조망 포인트를 연결하는 ‘호텔경유 야경투어’를 준비 중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부산시티투어버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부산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호텔에 투숙한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낙동강 둔치 삼락생태공원에 오토캠핑장 조성

삼락생태공원 내 7월 개방, 대저생태공원·화명생태공원도 조성계획

부산 최초의 자동차 야영장이 낙동강 둔치 삼락생태공원에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서부산지역이 오토캠핑(Auto-camping)의 명소가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삼락생태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를 6월 말에 완료해 7월에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공사는 부산 최초의 자동차 야영장 조성 사업으로,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가 공모한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년간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삼락생태공원 계류장 인근

5만3200㎡ 부지에 62면의 오토캠핑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본부는 캠핑장이 수변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주변 지반보다 50cm 정도 높게 조성했다. 전기시설인 분전반 역시 보통의 캠핑장보다 높게 설치했다. 비가 올 때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환경 침해 논란을 고려해 철새 도래 시기인 11~2월 캠핑장을 운영하지 않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사업지 가까이 철새도래지가 있어 생물 서식환경 보전을 고려해 캠핑장 조성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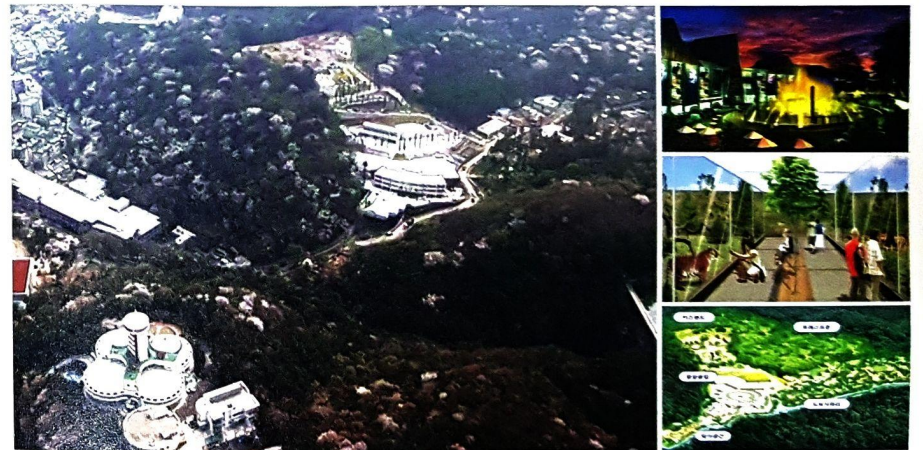
2014조선통신사 축제 | 5월 2~5일까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 한·일 양국의 관계회복과 평화적 외교를 바탕으로 문화교류를 주도했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부산에서 재현한다. 조선통신사축제가 5월2일~5일 옹두산공원, 광복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는 학술행사, 조선통신사 임명부터 일본으로 떠나는 과정을 연극으로 선보이는 ‘조선통신사의 밤’, 한·일 참가자들이 펼치는 초대형 퍼레이드 ‘평화의 행렬’ 등을 볼 수 있다.

부산 동물원 ‘더 파크’ 개장

“동물이 새우리 적응 못하면 관람제한...반쪽개장 우려도”



부산 유일의 동물원 ‘더 파크’가 25일 문을 열었다. 코끼리, 사자 등 모두 123종 428마리의 동물, 체형 동물·작은 동물까지 포함하면 1200마리이며 이중 포유류 41종, 조류 22종, 파충류 60종 등이다. ‘더 파크’가 들어선 어린이대공원 부지 내에는 15동의 동물사와 동물병원, 편의시설에 설계 단계에는 없었던 코끼리사, 펭귄사와 양떼목장, 파충류관, 조류관을 추가로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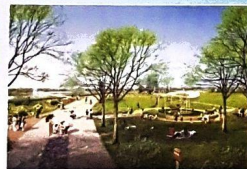
부산시민공원 5월 1일 개장

- 경마특별
- 기억의 숲길
- 문화의 숲길
- 즐거움의 숲길
- 자연의 숲길
- 참여의 숲길
- 부전천 프르미나드
- 예술체험 존
- 시민공원역사관
- 기억의 기둥
- 미로정원
- 방문자 센터
- 랜드마크 폭포
- 거울못공원
- 상징광장
- 서클타워/놀이시설
- 중앙잔디광장
- 쉼터/화장실
- 철쭉동산
- 도시역사/생태관
- 숲속 레스토랑
- 참여의 정원
- 참여의 벽
- 공원문화센터
- 전포천
- 음악분수
- 도심백사장
- 물놀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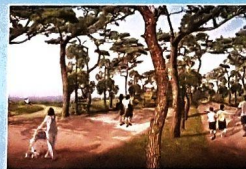
100년 만에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이 오는 5월 1일 공식 개장한다. 시민공원은 부산진구 범전·연지동 옛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 53만 800㎡에 6천679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2011년 8월 착공해 2년 8개월 만에 개장하게 됐다. 시민공원은 97만여 그루의 각종 나무로 이뤄진 다양한 산책길과 생태 복원 하천인 부전천 및 전포천, 문화체험공간 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 힐링공간으로 개방된다. 시민공원에선 현재 150종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관목이 대부분인 85만 그루이지만 키가 큰 교목도 15만 그루에 달한다. 이 중 1870그루는 원래 하야리아 부대 안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다.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다섯 가지 주제의 길에는 이들 길을 상징하는 나무가 길을 보호하듯 에워싸고 있다. 100만 그루 나무 중 가장 비싼 나무는 시청 옆에서 가져온 녹나무다. 현재 가치로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얼굴이 비친다는 '거울 연못'에는 100살 부부송(夫婦松)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 하야리아 부대에 있던 수십 년 된 플라타너스 98그루는 역사를 안다는 듯 저마다의 모양을 뽐내며 숲을 이뤘다.



랜드마크 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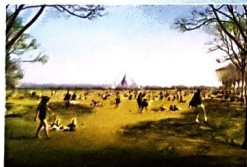
즐거움의 숲길



자연의 숲길



미로정원



중앙잔디광장



참여의 숲길

6월이면 열린광장 송상헌 광장 개장 광화문 광장 능가하는 소통·문화 열린공간 터 카페·패션·공연·음식 등 7개 특화거리 조성할 계획도

개장일이 오는 6월 12일로 늦춰진 송상헌광장은 잔디를 심은 공간(1만757㎡)이 전체 광장의 30%를 차지한다.

시민 삶의질을 한단계 높이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어울릴 열린공간 송상헌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송상헌광장이 들어서는 곳은 예전 송상헌 동상이 있던 부산진구 양정동 송공삼거리에서 전포동 삼전교차로까지의 구간이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던 8차로의 중앙대로 자리에 들어서는 광장은 길이 700m, 폭 45~78m, 전체 면적 3만4740㎡로, 길이 550m, 폭 34m로 1만8000㎡인 서울 광화문광장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다.

송공삼거리에서 서면 방향의 기존 8차로 도로를 송상헌광장 양옆으로 변경해 광장 남쪽은 4차로, 북쪽은 7차로 규모의 새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광장 조성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송상헌광장은 송공삼거리의 동상 자리 인근이 역사 체험 및 기념공간인 '역사마당'으로 조성되고 여기서부터 서면 방향으로 시민의 활동과 휴식 공간이 될 '다이내믹 부산마당', 공연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할 '문화마당' 등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8600㎡ 넓이의 역사마당은 고지도 모양을 본뜬 바닥분수와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헌공 동상 기념광장, 모니미 고개를 재현한 역사의 숲으로 구성된다. 1만5750㎡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다이내믹 부산마당에는 잔디광장과 화강암 판석을 깔 포장광장, 산책로 등이 들어서고 거리응원이나 시민행사, 루미나리에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효영 기자



송상헌공 동상



부산시관광협회 국내여행 분과위원회

베어트리파크(베어트리파크~세종시~청남대) 초청 투어 참가



베어트리파크 수목장

곳으로 산악, 고원, 계곡, 폭포, 사막 동·식물 그리고 꽃, 수목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100여마리의 반달곰, 100년 이상된 향나무 숲 산책 길이 인상적이다. 10만여 평의 대지에 50여년간 개인이 가꾸어 온 1000여 종, 40만 여점에 이르는 꽃과 나무들이 준비하게 늘어선 국내에서 보기드문 동물이 있는 수목원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세종시 호수공원은 부지면적 61만㎡, 물면적 32만 2800㎡, 담수량 50만8천톤으로 축구장 62개 크기로 조성됐다. 대통령들의 별장 청남대는 보안상 이유로 지도속에 찾을 수 없는 잊혀진 공간이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부산시관광협회 국내여행분과위원회(위원장: 대륙항공여행사 장순복 대표)는 지난달 20일 회원사 대표 등 일행 33명은 베어트리파크 수목원 초청으로 세종시와 청남대를 다녀왔다.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베어트리파크 수목원은 자연적 관광형태의 한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가지 형태의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재임시 충청북도에 관리권이 넘겨져 현재는 충청북도에서 관찰하고 있다. 이곳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승용차는 입장이 안되며 9인 이상 승합차로 이동할 수 있다.



▲전대통령들의 별장 청남대

▼세종시 호수공원



부산시·김해시 '허왕후 신행길' 관광코스, 관광상품화 시킨다

부산과 김해시가 공동으로 관광상품화를 추진 중인 가야국 김수로왕의 비인 '허왕후 신행(新行)길' 코스를 관광상품화 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했다.

허왕후 신행길은 국내 최초의 국제결혼과 남방불교 유입 과정 등 특색있는 스토리텔링을 담은 예정으로,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천여 년 전 인도 아유타국의 허왕후 공주가 고국을 떠나 가야국 김수로왕을 만나기까지 길목마다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깃들여 있다.

신행길은 망산도(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 유주암 ~ 흥국사(부산 강서구) ~ 김수로왕릉을 잇는 코스다.

망산도는 허왕후가 배를 타고 가야국으로 오는 것이 목격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허왕후가 타고 온 배가 바다에서 뒤집혀 바위가 됐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유주암, 허왕후와 김수로왕이 첫날밤을 보냈다는 흥국사도 볼거리다. 코브라 뱀이 불상을 떠받드는 형상인 사왕석도 흥국사에서 볼 수 있다. 김수로왕릉

누각에는 허왕후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파사석탑이 있다.

국·시비 등 1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민간전문가 총 14명이 참여한 '허왕후 신행길 공동추진협의회'도 이미 구성됐다.

부산시는 역사고증을 통해 최초의 불교 유입 및 허왕후 이동 경로, 김해 김 씨와 허 씨의 분파과정, 의복·유적지 등 고대 가야문화 등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어 허왕후 신행길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하는 등 동아시아 우수 문화유산으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9월 망산도 ~ 흥국사 ~ 서낙동강 일원 ~ 김수로왕릉까지 인도 관광객들도 참여하는 신행길 행렬 재연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인도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당시 복장을 입고, 혼례풍습을 재현하게 되며, 부산연등축제, 낙동강 뱃길특원 사업과도 연계해 재연행사 때 생태탐방선을 띄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동시장·범천동·골드테마거리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선정



최근 부산시에 따르면 소기업청이 현장 평가와 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20

형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됐다.

1950~60년대 철거민들의 정착이주지인 서동시장은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지난해 선정된 유니세프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과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접목한 큰 텐트를 제출해 중기청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큰 귀금속 상인인 골드테마거리는 중국인 등 외국인 쇼핑객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과 명품브랜드를 특화해 인근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문현 금융단지 등과 연계한 상권 시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사업' 대상지에 뽑힌 해운대시장과 주변 구남로 및 애항길의 상징가는 중기청으로부터 향후 3년간 총 1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슬럼화로 상가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징가는 향후 테마거리 조성, 간판 정비 등 환경 인프라 정비,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국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

14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부산의 서동시장과 골드테마거리 등 전국의 23개 시장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들 2개 시장은 이로서 향후 3년간 각각 최고 14억 원(국비 7억 원, 시비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2008년부터 시작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중기청과 전국 각 시·도가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은 이로서 올해 추가로 선정된 이들 2개 시장을 비롯해 2012년 영도구 남항시장(3년차), 2013년 중구 부평강동시장과 동래구 동래시장(2년차) 등 총 5개의 문화관광

봄·가을 관광주간 신설

5월1일부터 11일까지, 9월25일부터 10월5일까지 총 22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봄·가을에 '관광 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일부 지역 초·중·고교에서도 재량 휴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차 회의가 외국인관광유치에 주력했다면 이번 회의는 내국인의 국내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관광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관광주간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로 정해졌으며, '내나라 여행가기' 캠페인과 함께 초·중·고교의 재량 휴업을 유도하는 등 봄·가을 국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또 도시의 관광 경쟁력 제고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을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 각 지자체에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내 초·중·고교의 경우 관광 주간에 맞춰 재량 휴업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사실상 단기 방학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으로 규정돼 있는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카지노 진출 벽이 낮아지게 되나 신뢰성 낮은 외국자본의 유입 가능성에 따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500억원의 창조관광기업의 육성 펀드를 조성 운영하고 창조관광보육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시설자금과 1천억원 이상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관광지·관광특구의 용자한도액을 200억원으로 늘리며 저소득층의 통합 문화 이용권 등을 통한 신규 여행수요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국내선착륙료·정류료·조영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보스톤 마라톤 등 지역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는 한편 농어촌 관광개발을 위해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제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내국인의 국내 관광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제관광 경쟁력을 15위권으로 끌어올리며, 관광분야 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부산시는 올해를 한방의료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내용의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최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한방의료관광객은 1만 1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부산을 찾은 관광객은 11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방의료관광객 중에서는 60% 이상이 일본인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인과 러시아인이 뒤를 잇고 있다. 한방의료관광객은 전체 의료관광객의 5% 수준으로 시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내다봤다.

시는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팜 투어를 활발히 펼치고, 의료관광산업전에 한방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국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최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의료관광과 관련한 한방 지출액은 1조8000억 원, 관광 지출액은 1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생선파급 효과는 한방 부문 3조 원, 관광 부문 2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한방 인프라를 관광 자원과 결합하면 전국 최고의 한방관광도시가 될 수 있다. 미용성형 침술과 피부 미용, 비만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항에 유람선 띄우자' 한 목소리

부산 어패류조합 서명 추진, 관광·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영도다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난해 말 영도다리 도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들자 "부산 남항에 유람선을 하루라도 빨리 띄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은 영도다리 일대,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산 자갈치관광유람선 선착장 조성'과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광복지하도상가·부평강통시장·남포지하도상가 상인회, 신동아 수산물종합시장번영회, 부산자갈치축제위원회 등 10개 단체가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종진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장은 "영도다리 도개만으로는 꾸준한 관광객 유치에 어려웠던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며 "현재 가덕이나 해상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데 관광유람선을 가급적 빨리 운항하면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빠른시일내에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조율해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항만청은 부산항계 대부분에서 유람선 운항을 금지한 현행 '부산항 항법' 등에 관

한 규칙' 개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1994년 부산항에서 선박 충돌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해운대 미포~오륙도·태종대를 제외한 영도대교 등 명소는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없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은 "항법 규칙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올해 안으로 유람선 운항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며 "유람선이 다니려면 계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부산항 크루즈 이용 관광객 최대치 기록될 것

지난해 1분기 1만3000여명, 올해 2만5000여명으로 전년 보다 배 늘어

올해 1분기 크루즈선박을 타고 부산항을 찾은 외국인은 지난해 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산세관에 따르면 1분기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선박은 모두 13척으로 지난해 1분기 입항 선박(17척)에 비해 줄었다. 입항횟수는 줄었지만 크루즈선박이 대형화하면서 크루즈 여행객은 지난해 1분기 1만3천여 명에서 올해 1분기엔 2만5천여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중국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1분기 크루즈선박을 타고 부산항을 찾은 중국인 여

행객은 90명이었지만 올해 1분기엔 2만여 명으로 늘었다. 무려 22배나 증가한 것이다.

부산항에는 올해 크루즈선박이 135차례 입항 할 예정이어서 크루즈 관광객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루즈 관광객이 늘어난 반면 부산항을 오간 해외여행객은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부산항 해외여행객은 30만8천여 명으로 지난해 1분기 여행객(33만8천여 명)에 비해 9% 감소했다. 입국 여행객이 10%, 출국 여행객이 7% 줄었다.

감천마을, 6월부터 내국인 민박 전면 허용

관광활성화, 지역마을 활기 불어넣는 계기될 것

부산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에서 내국인 민박이 전면 허용된다. 또 동구 초량·이바구길과 서구·중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등에서도 관련 요건만 충족되면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벽화와 설치미술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감천문화마을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역 등에 숙박시설이 없어 체류형 관광이 힘들다'며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문화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국토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각각 주장해 '자기 부처의 규제권한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내국인 도시 민박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유진룡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하지만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은 그동안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급기야 부산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3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내국인 도시 민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부를 압박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잇달아 갖고 결국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마을이나 테마길 등 지역의 고유한 관광특성이 유지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국인 민박을 허용하되, 도시재생특별법당 '마을기업'이 이를 운영하도록 했다.

감천문화마을과 동구·서구·중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은 우리나라 현대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곳으로 그 역사성과 문화성을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마땅하다. 지역공동체 삶의 질도 끌어올리는 건 물론이다. 이제 도시민박이 허용됨으로써 토대가 마련됐다. 앞으로 봉래·황령·금정산까지 확대된다면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은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테마형 관광지로 조성

안창마을~감천문화마을~비석문화마을~현여울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부산항 개항이후 들어온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촌에 6.25 피란민과 이주민들이 비석 등을 건축자재로 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마을이라는 아문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테마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1억9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산복도로 골목길 테마 탐방로 및 응벽특화 조성사업'이 최근 모두 마무리됐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독특한 마을 형성사와 산복도로 최고의 조망 등으로 인해 '산복도로의 숨은 보석'으로 불리고 있는 곳이다. 골목길 테마 탐방로는 도시철도 토성역을 시작으로 약 2km에 걸쳐 조성돼 있는데 토성역 앞 탐방로 안내판을 비롯한 20여 개의 '안내간판'이 곳곳에 설치

돼 아미동의 구석구석과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감천고개 입구 길이 15m, 높이 6m의 비석문화마을 마을지도에는 탐방로 코스는 물론이고 사진작가 최민식 갤러리가 있는 아미문화학습관, 각종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차집예술택시 등 인근 가볼만한 명소 등이 표시돼 있다.

마을중간지점인 노상 주거지 주차장 옆에는 멋진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남·북향 일대와 용두산, 자갈치 등 원도심 전체의 조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시는 앞으로 "안창마을~감천문화마을~비석문화마을~현여울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이효영 기자

롯데호텔부산의 부산 투어 제안

부산, 더 잘 보려면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김성현)은 4월 1일부터 체험 관광 프로그램, "L.T.E ROAD 볼편"을 새로 개편해 선보인다. L.T.E ROAD는 호텔이 차량을 제공하고 투어 컨설턴트가 일정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동행하며 부산 곳곳의 명소를 직접 안내하는 관광 프로그램. 호텔 패키지 상품 이용객에게 1실 최대 4인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 함께 투어하며 지역에 얽힌 스토리까지 풀어내다 보니, 더 이상의 해운대 경치 감상이 심심하다는 관광객들의 호응이 뜨겁다.

기쁜 것은 관광객뿐만이 아니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조금 더 부산 깊숙이 들어와 줬을 했던 지역전통시장 상인들도 흥이 나긴 마찬가지. L.T.E ROAD는 부평깡통야시장,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부산의 정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지역전통시장 체험 코스를 포함한다. 호텔은 지역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디럭스룸 1박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3



만원 권을 묶은 "익사이팅부산 패키지"를 내놓고, 패키지 이용객을 차에 태워 실제로 시장까지 안내해 준다 하니, 처음 특급호텔-시장 간의 협력을 돈독했다 여기던 반응들이 쏙 들어갔다. 익사이팅부산 패키지의 가격은 주중 기준 20만원부터(세금 봉사료 별도).

예약 및 문의 : 051-810-1100

해운대그랜드호텔

BC카드와 함께하는 'THE G - My Baby Package'

해운대그랜드호텔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런 나의 아기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THE G - My Baby Package를 선보인다.

BC카드와 함께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날 수 있는 이번 패키지의 상품 구성은 A타입은 디럭스룸 1박 기준 바다전망 18만원이며 무료 발렛 서비스와 호텔 기념품 아기 목욕가운, 누들앤부 백팩 및 스페셜 여행용 3종을 무료 제공한다. B타입은 A타입에 티파니 뷔페 레스토랑의 2인 조식이 포함되



며 바다전망 22만원이다. (세금, 봉사료 별도 / 금, 토, 공휴 전일 5만원 추가 / BC카드 외 다른 수단 결제 시 10만원 추가) 한편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겐 15시까지 체크인 연장과 사전 예약 시 아기 침대 제공, 유모차 대여, 멤버사우나, 대수영장 50%할인, 식음료 영업장 10%, 부산아쿠아리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의 : 051) 740-0596 / 101-6321-3102

부산타워 42년만에 리모델링 용두산공원도 새롭게 단장 돼

역사·문화·관광 등 부산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정립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도시 상징 탑'인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釜山 tower)가 건립된 지 42년 만에 리모델링하고 또 용두산공원도 새롭게 단장된다.

부산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예정공사비 150억원 규모의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개념의 부산 도심 재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타워 건축물은 그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재 등록도 추진되며 용두산공원 내 각종 시설물을 관광자원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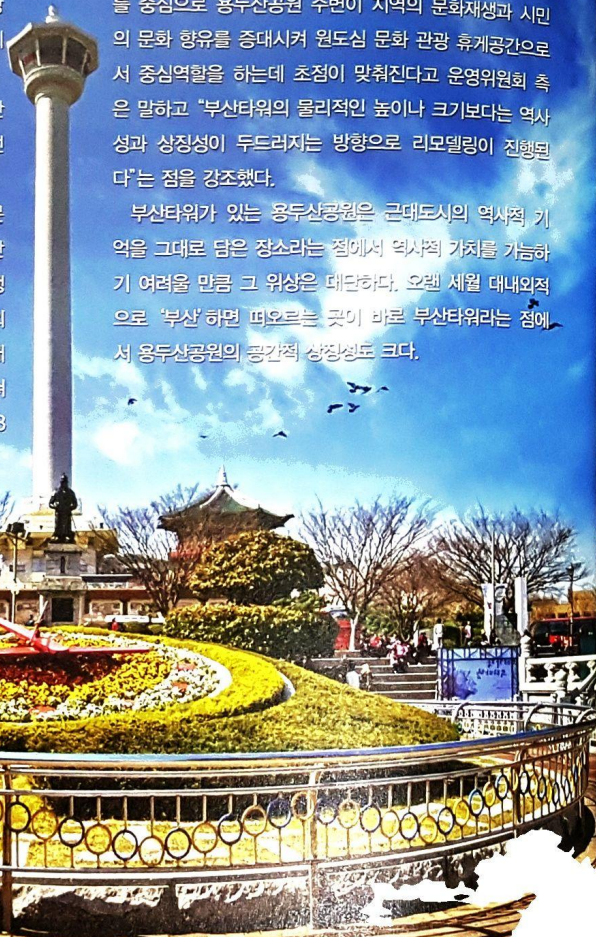
부산타워(높이 120m)는 1975년 8월 완공된 서울 남산의 서울타워(철탑 101m, 탑신 135.7m)보다 2년가량 앞선 1973년 11월 건립됐다.

부산시와 국제설계공모 계약을 체결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꾸렸으며, 운영위원회는 지난 달 부산타워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설계 참가 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40개국에서 163개 팀(국내 47개 팀, 국외 116개 팀)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기술 심사 등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여기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3

만 달러의 시상금과 부산타워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을 받는다. 우수작(1점)과 가작(1점)은 각각 시상금 1만 달러와 5000달러를 받는다. 작품출품은 5월 23일까지며 5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 6월 4일 시상식을 진행한다.

국제설계공모 범위는 부산타워와 부대시설인 팔각정과 전시실(상업시설)을 포함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타워를 중심으로 용두산공원 주변이 지역의 문화재생과 시민의 문화 향유를 증대시켜 원도심 문화 관광 휴게공간으로서 중심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고 운영위원회 측은 말하고 "부산타워의 물리적인 높이나 크기보다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타워가 있는 용두산공원은 근대도시의 역사적 기억을 그대로 담은 장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그 위상은 대단하다. 오랜 세월 대내외적으로 '부산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부산타워라는 점에서 용두산공원의 공간적 상징성도 크다.



황령산에 부산전역 조망할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

‘부산시 야경명소의 하나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황령산에 전망타워를 세워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황령산 전망타워 조감도

서울을 비롯해 일본 도쿄,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은 도시를 상징하는 전망타워를 갖고 있다. 이들 도시의 전망타워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함 볼거리, 이색 즐거움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황령산에도 부산 전역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타워가 들어선다. 부산시는 야경명소의 하나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황령산에 전망타워를 세워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했다.

내년 말 완공 계획인 황령산 전망타워는 봉수대 인근 부지 1만2천805㎡에 연면적 2천400㎡, 100m 높이로 건립한다. 시는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에 대한 용역을 이번 달까지 수행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전망타워 건립에 앞서 지난 2월21일 부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조한제 KBS부산방송총국장, 김수병 부산MBC사장, 이만수 (전)KNN사장, 시민단체, 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령산 송신탑' 통합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망타워 건립에 필요한 사전 조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지역 방송 3사는 송신탑을 전망타워 내 공동 송신시설 한 곳으로 모으기로 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의 첫 걸음으로 야경도시 부산 위상에 걸맞게 '황령산 야경관광 인프라'(쉼터·전망데크 조성, 전망타워 건립)를 확충한다. 친환경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조성, 지역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등을 힘껏 추진한다. 영화의 전당 일대와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 등에 자리한 영화 관련 시설과 촬영지를 하나의 존(Zone)으로 묶는 '해운대 영화의 거리', '달맞이길 포토존' 조성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름다운 녹색길
같이 걸어요!



금정산 실버로드

한반도에서 햇살이 가장 먼저 비친다는 금정산은 골짜기마다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항상 흘러나리고 화강암의 기암절벽이 절묘한 산세를 일구어 마치 아름다운 수목화를 펼쳐놓은 듯한 부산의 진산으로서 부산의 역사와 그 뿌리를 함께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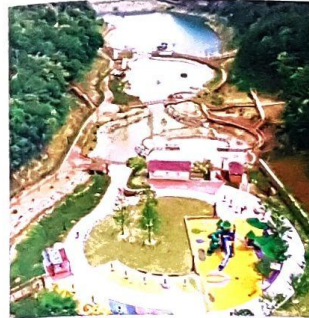
어린이대공원은 부산의 중심지인 서면에서 약 3km 북쪽 백양산(해발 642m)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며, 5,052천㎡의 면적에 수원지(1909년 준공) 주변 중심으로 상록참엽수인 삼나무, 편백 등 각종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도심속 시민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천천 산책로(연제구)

온천천(溫泉川)은 일명 동래천(東萊川), 서천(西川), 범어천(梵魚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부산광역시외의 진산인 금정산 고당봉과 이산봉우리 동쪽에 있는 계명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범어사, 청룡동 삼마전 마을에 모여 수원지를 이루고, 금정구·동래구·연제구를 관류하여 수영강으로 흘러내린다.

황령산 벚꽃길(물만골로)

금정산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히는 황령산은 연제구와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에 걸친 부산시의 중심에 있으면서, 금련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산 정상부는 남미대륙의 안데스산맥의 화산에서 많이 발견되는 안데사이트(andesite), 즉 안산암으로 이어진다.



회동수원지 수변산책로

오륙대는 금정구 오륙동의 회동수원지 부근 아름다운 경치를 일컫는다. 산과 새 바위의 조화로 병풍을 이룬 기장군 칠마면 아홉산을 비롯하여 사방이 산으로 쌓여있는 골짜기에는 봉황과 백구가 날아오를 듯이 경치가 뛰어난 곳을 오륙대라 했다.

일광산 테마 길

일광산 정상으로 향하는 산길은 해발 388m로 그리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광생을 지나 500m 가량 오르면 금세 일광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정상에 바위에 올라서면, 오른쪽 끝으로 기장체육관, 일광해수욕장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울산 앞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용소 웰빙공원 길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용소웰빙공원은 2008년 5월 14일 개장하였다. 이 공원 조성사업에는 32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만9000㎡ 면적에 숲과 저수지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과 자연학습, 건강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연대산 등산로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459.4m의 연대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다. 이 봉수대의 설치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 의종 때를 전후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891년 광무원년에 전국 봉수대의 역할이 폐지될 때 형체가 거의 없어진 것을 1996년 4월 복원시켰다.

엄광산 숲길(등의대 ~ 개금복지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산동과 부산진구 개금동 사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산이 높아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의 고원 견산으로 불렸으나, 1995년 4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의 '옛 이름 찾기 운동'으로 엄광산이란 이름을 되찾았다.

2002 한·일 월드컵 소회



올해는 세계인을 열광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제20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이다. 브라질의 아름다운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브라질리아 등 12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한익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특별연구원

월드컵하면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2002년 6월 한 달은 그야말로 박수와 함성, 기쁨과 행복, 열광과 환희로 가득찬 축제의 기간이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은 안으로는 우리국민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밖으로는 우리나라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함께 즐기는 축제를 개최할 충분한 자질을 가진 나라임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사실 월드컵이 임박해질 때까지 우리네 정(情)문화는 월드컵의 상업성에 가려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대회를 치르기 위해 각국 선수단이 입국하는 모습을 TV중계를 통해 보면서 그 생각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별로 구성된 서포터즈 수십, 수백 명이 입국하는 선수단에게 웃음 가득한 얼굴로 플래카드와 두 손을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비춰졌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토인 분장을 한 우리 어린이들이 아프리카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는 장면이 있었다.

물론 정착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외국선수단은 어리둥절해 하는가하면 당황해 하기도 했고 이해못하겠다는 표정까지 짓는 선수도 보였다. 이를 보면서 우리민족의 손님 환대는 정말 유별나구나 하면서도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안타까웠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 임원도 있었다 한다. 대회 초반에는 외국선수들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속마음도 모두 같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다른 나라의 월드컵을 경험한 어떤 이는 월드컵이 축구대회가 아니라 바가지와 불친절 대회였다면서 우리도 우호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터넷에는 '월드컵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느 팀이나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음에도 적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우리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 부산시민 모두는 부산의 주인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찾아온 관광객을 친절히 맞이하고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환대해야 할 때이다. 2002 한·일·월드컵 때보다 더 낯은 모습으로, 주인정신이란 모두가 내 것이라는 소유정신이 아니라 찾아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친절정신이기 때문이다.



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네티즌의 불만 섞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서 신미양요 때 강화유수의 선전포고문이 떠올랐다. 미국상선 제너럴셔먼호 소각사건을 응징하기 위해 강화도에 침입한 미 국동함대 사령관에게 당시 강화유수는 '아국은 타국을 괴롭힌 일이 없는데 타국이 아국을 괴롭힘은 무슨 도리인가 하는 준엄한 선전포고문 말미에 '만리풍파에 시달려 시장할 테니' 약소하나마 거세한 황소 세 마리와 닭 50마리, 그리고 달걀 1만개를 보내노라'고 했다.

이같은 우호적이고 인정적인 선전포고문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렀다하더라도 전쟁은 전쟁이고 손님은 손님이니 주인의 도리는 다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대문화인 것이다.

몇 년 전 국제회의 참석차 하와이에 간 적이 있다. 사전준비 관계로 대표단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 다음날 대표단 마중을 위해 공항에 나가보니 우리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하와이 원주민인 듯한 여인 한 명이 레이(lei)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하였고 조금은 따분한 듯해 보였다.

이윽고 우리 대표단이 도착하였다. 환영 나온 여인은 대표단장의 목에 레이를 걸어주고 약속하면서 한 번 씩 웃고는 끝이었다. 우리의 손님맞이에 비해 너무 기계적이고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서구문화의 현주소다. 친절함 미소 뒤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웃음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진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이 보여준 친절과 인정은 세계인을 감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찾아온 손님을 손님으로 환대해야 한다는 마음은 너 나 없이 한결 같았다. 연세 지극한 어르신으로부터 학생, 직장인, 주부, 노동자, 택시운전자, 템플스테이하는 스님, 재래시장 아주머니, 슈퍼마켓 아주머니, 심지어 할머니 손을 잡은 꼬마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아주머니의 친절이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리기도 하고, 브라질-터키전으로 빚어진 터키 국민들의 약감정은 한국 국민들이 터키 선수단에 대해 친절과 인정으로 환대를 베푼 소식을 듣고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가하면 한국 첫 승의 제물이 된 폴란드팀의 주전 골키퍼 듀렉은 한국인의 친절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나라로 돌아갔다.

또한 해외 언론들은 '진정한 우승국은 한국'이라며 한국인의 친절함과 훈훈한 인정, 열정과 질서 정연한 응원 등에 놀라움과 함께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축구경기인 월드컵 대회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세계에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속담에 '물을 쏟으면 줄고 정은 쏟으면 불어난다'는 말이 있다. 붉은 함성이 떨어지지 곳마다 이야기꽃이 피었고 우리의 인정이 뿌려진 곳마다 평화와 우정의 열매가 활짝 열렸던 한·일 월드컵이었지 않나 싶다.

2200년의 시공초월, 영도다리와 진시황 그리고 서복 프로젝트



장순복
부산시 관광협회 부회장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중국 최초 통일국가의 시조인 진시황은 주변국 6개국 간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각개격파정책으로 한(韓), 조(趙), 연(燕), 위(魏), 초(楚)나라를 멸한 뒤 기원전 221년 마지막으로 남은 동방의 대국 제(齊)나라를 멸하고 중국천하를 통일했다. 유럽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 대제국을 이룬 진시황제는 글자, 화폐, 저울크기, 마차바퀴 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한편 관료제와 군현제 등을 실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원형을 구축했다. 진시황은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 영초(靈草), 불로장생한다는 기약(奇藥) 그리고 선인(仙人)이 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얻은 사람, 진인(真人)을 꿈꾸었다. 진인이 되고자했던 진시황은 불로장생의 방법을 알고 있다는 신선의 술법을 뒤는 방사(方士)라 불리우는 자들을 궁으로 불러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했다. 방사가운데 이름 높았던 노생(盧生), 후생(侯生) 등은 영약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제나라 출신 서복은 기원전 219년(진시황28년) 저 멀리 바다 건너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라 불리우는 삼신산(三神山)을 찾아 그곳에 살고 있는 신선을 모셔오겠다는 상소를 올렸다. 진시황은 서복의 상소를 받아들여 신선들을 만나 약초를 구해오도록 했다. 서복은 신선들에게 줄 금은보화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에게만 불로초가 보

인다는 구실로 동남동녀 500명을 하사받았다.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추앙받고 있는 사마천은 기원전 91년 완성한 사기(史記)에 2천여 글자에 달하는 서복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사기에는 중국 칭다오(靑島 : 청도)의 자오난(膠南 교남)에서 진시황과 서복이 만났으며 서복이 동쪽을 향하여 바다를 건넜다는 서복동도(徐福東渡)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서복의 선단이 출항했던 곳은 친황다오(秦皇島 : 진황도) 장쑤(江蘇 : 강소)성의 연운항(連雲港) 등 여러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자오난의 럼야타이(瑯牙臺 : 낭야대), 월왕 구천(勾踐)이 수도를 옮기면서 럼야타이를 만들었고 진시황이 3만호를 이주시켜 대대적 공사를 벌여 만들었다고 송나라 때 사학가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에 그 기록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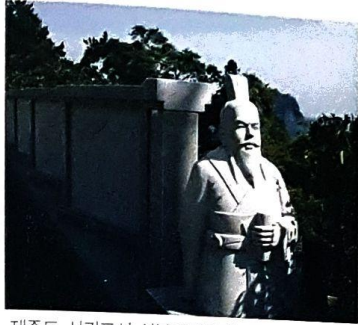
서복 대선단의 1차 출발은 기원전 218년, 2차 출발은 기원전 210년으로 8년 동안 불로초를 찾아다녔다. 중국 발해 만(성산두-위해-연태-봉래) 연안에서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 덕적도, 진도, 고흥나로도도 이어지는 뱃길을 따라왔으며 1차 항로 때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중국으로 돌아갔으며 2차 항로 때는 3,000명에 달하는 대선단을 이끌고 금강산으로 갔다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부산을 경유, 일본으로 갔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서복의 마지막 상륙지는 일본이었다. 와카야마(和歌山 : 화가산)현의 신구(新宮: 신궁)시 아오모리(靑林)현의 고도마리(小豆)마을 등 여러 지역에 서복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다. 큐슈 사가(九州佐賀)의 모로도미(諸富) 마을에는 서복의 후손들, 세계 서씨 종친회가 그를 기리고 있다. 서복이 처음 도착했던 아리아케(有明海)에서 큰 잔을 띄워 잔이 도착했던 곳은 부바이(浮杯 : 부배)라 불리우며 서복석상과 상륙 안내판, 상륙지, 에서 1Km 떨어진 킨류진자(金立神社)에는 서복상륙기념비

가 세워져있다. 서복(徐福)이라고도 쓰며 서복(徐紱) 또는 서시(徐市)라고도 불리우는 서복이 지나갔다하여 서복과차(徐市過此) 또는 서복과지(徐市過之)라 쓴 글씨와 서복이 지나갔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은 의외로 많이 남아있다. 덕적도의 국시봉, 고흥의 봉래도, 주왕산의 서시천을 비롯하여 전남 구례읍을 가로지르는 서시천(徐市川)은 지리산을 동쪽으로 휘감으며 남해에 이르는 섬진강의 한줄기로 그 이름에서 서복일행이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을 찾아왔음을 전설로 남겼다. 남해 금산부소암 오르는 길목 바위에 남아있는 선사시대의 고문자는 경성 남도 기념물 6호로 서복과 연관된 흔적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명승 2호 해금강이 바라보이는 우제봉 절벽에 서복과차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으며 우제봉(雨祭峰)은 서복이 산신과 용왕에게 기우제를 올렸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떨어

지는 해안폭포로 유명한 제주도 서귀포의 정방폭포 벽에는 서복이 남긴 서복과차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으며 불로초를 찾지 못한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갔다하여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산은 서복이 찾고자 했던 삼신산의 중심이었으며 도로로 이어내린 신선사상이 뿌리내린 곳이다. 부산의 동래(東萊)라는 지명은 봉래에서 유래되었다. 동래는 통일신라 경덕왕 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으며 海東蓬萊(해동봉래) 고을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1885년 절영도첨사 임익준(任翊準)은 영도 지명을 지을 때 동쪽 바다 한가운데 신선이 사는 곳이 봉래라하여 신선과 연관된 이름을 많이 지었다. 봉래산, 봉래동, 영선동, 신선동, 청학동 등이다. 영도의 진산 봉래산(395m)과 마주한 영선산(瀛仙山)은 신선이 머무른다고하여 영주산 또는 영선산이라 불렸으며 영주동으로 부르고있다. 문헌으로 남아있는 서복전설은 1869년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남긴 봉래별곡(蓬萊別曲)이다. 불로초를 캐던 배(採藥舟 : 채약주)를 타고 온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영도의 선경을 두루 구경하였으나 불사약을 구하지 못했음을 빗대어 방사서복이 빈말을 남겼다는 시를 남겼다. 서복이 지나갔다하여 남겨진 서복과차라는 글씨 역시 부산에도 남아있었다. 동천의

옛 이름은 보만강(寶滿江) 또는 풍만강(楓滿江)이라 불리웠다. 뚝단배가 보만강을 따라 흐르던 시절에는 자성대연덕에 건강사(見江寺)라는 절이 자리잡고 있었고 백사청송이 펼쳐지는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강선대(降仙臺)의 숲과 기암괴석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부대가 주둔하기도 했던 배정고등학교 교가에도 나오는 강선대는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고 조선시대 말까지 서복의 사당이 있었으며 서복과차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서복기념관에 세워진 서복석상

해방 이후 혼란기에 이 비석은 사라지고 말았다. 서복은 역사적인 인물이며 그의 가계와 출항 후 그의 친족들에게 당부한 자료가 그의 고향 산동성 룡구(山東省 龍口: 산동성 용구)에 전해내려오고 있다. 서복은 중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 콘텐츠(contents)다. 서복 관련 관광 마케팅을 위하여 부산서복연구

회를 만들어야 한다. 베이징(北京 : 북경)을 포함, 11개 서복 관련 연구회를 거느리는 중국, 수십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서복연구회와의 국제교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일본인을 추월해 1위로 올라선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서복관련 관광상품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이모우(張藝謀 : 장예모)감독이 연출한 항저우(杭州 : 항주)의 인상서호(印象西湖) 수상공연과 계림의 이강을 무대로 한 환상의 레이저쇼 인상유상제(印象濶三傑 : 인상유상제)와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영도 경찰서 이전 또는 부산대교 보세창고를 이전시키면 환상적인 빛과 음악을 통해 펼치는 공연이 가능하다. 서복을 부산 최고의 스토리텔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복의 전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한 인프라(infra: 생산이나 경제활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문화원이나 기념관 건립이 아닌 서복기념사전을 찍을 수 있는 뷰포인트(view point) 한 곳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서복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중심은 영도 봉래산을 바라볼 수 있는 영도다리 주변이어야 한다.



2011년 대한민국 명장
'(주)덕화푸드 대표이사 장석준'의

청주로 빚어낸 저염명란



청주로 빚어낸 저염명란은
4% 염도의 짜지않은 명란으로
청주로 맛을 내, 비리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덕화푸드 고객센터 051-265-8163 www.dhfood.kr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1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9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892

즐거운 여행은 시티투어와 함께 하세요~

생생한 여행정보 및 예약서비스를 여행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시티투어 상품 안내



해운대 출발
(09:30)

기장 해동용공사

광안대교
(정유)

UN기념공원

태종대

광복동 PIFF광장
(5부동, 국제상업, 21부동)

단독 맞춤형 투어

- 45인승 / 28인승 / 25인승 버스 · 12인승 / 15인승 봉고 승합차
- 각종 기업체, 현장학습, 수학여행, 기타 단체활동 전세버스 상담문의



부산시티투어

〈9시 3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해동용공사-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부산시티야경코스

〈19시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이기대동생일-금련산전망대-광안리카페거리(경유)-해운대



부산문화감천마을코스

〈10시 20분 출발〉 ● 대인 22,000원 소인 20,000원
해운대-용두신공원-영도다래도개식-태종대-김천문화마을-자갈치-해운대



외도/통영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6,000원 소인 62,000원
해운대-거기대교전망대-해금강/외도-미륵산케이블카-해운대



태종대코스

〈11시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UN기념공원-태종대-자갈치-부산역-해운대



장사도/통영케이블카코스

〈7시 30분 출발〉 ● 대인 69,000원 소인 65,000원
해운대-거기대교전망대-장사도해상공원-미륵산케이블카-해운대



용궁사코스

〈11시 30분 출발〉 ● 대인 19,000원 소인 17,000원
해운대-해동용공사-동백섬-자갈치-부산역-해운대

- ※ 도착시간 18시 30분 경 동일
-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 최소인원 미달시 행사가 취소됩니다.

KTX와 함께하는 **서울밤도깨비 여행** 대한민국 쇼핑 메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 밤도깨비 야간 쇼핑여행!

요금 **68,000원** 부터~ 일정: 부산역→서울역→동대문(남대문)으로 이동→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쇼핑→서울역으로 이동→부산역

※ 제공내역: 왕복열차비, 여객사보험 / 불포함사항: 팜질방배(10,000원), 기타 개인비용 등 / 상행, 하행 열차시간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사용열차에 따라 여행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